

《경제학 콘서트》

어려운 경제학 논리,
유머와 사례로 쉽게 풀어



글_이영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팀 하포드 지음
| 김영철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350쪽 | 값 13,000원

○ 상반기에 많이 팔린 경제교양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경제학 콘서트》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를 사람들이 비로소 경제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경제학적 사고란 곧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은 곧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란 요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 콘서트》가 많이 읽힌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억측이 아니길 바란다.

필자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올해 초 우연히 아마존 사이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였다. 원 제목은 《Undercover Economist》로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잠복 근무 경제학자’ 썸 되겠다. 저자인 팀 하포드(Tim Harford)는 저널리스트로서 마치 잠복근무 중인 수사관의 심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경제문제들의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려 했던 것 같다.

원서와 번역서를 비교할 때 우선 국내 출판사에서 왜 책의 제목을 원제목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번역의 일부 내용 가운데는 필자가

정독을 해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번역책의 제목을 정하는 문제에는 원칙은 없겠지만 원제목의 정신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번역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책이란 단지 많이 팔리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나 문화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번역할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면 첫째, 역자가 이해한 것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 원저자가 다소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부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셋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의 주해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학 콘서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경제학 콘서트》는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는 적절한 삽화와 간단한 요약이 첨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즉 삽화와 요약은 원저에는 없는 것으로서 번역을 담당한 출판사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뿐만 아니라 책 자체가 소프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을 구성하는 10개의 장에서 다루는 내용 하나 하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 가운데 몇몇 장(5장, 7장)에서는 경제이론 가운데 첨단에 속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 내용 중 일부는 적어도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역사 주해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이것은 이 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번역이란 단순히 외국어로 된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원 저작의 내용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적절한 역사 주해를 추가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위 경제학자인 필자가 이런 인상을 받았다면 아마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번역이 잘 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저에서의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번역이라면 이런 점까지 감안해 독자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번역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단순히 신속하게 번역해서 시장에 내놓는 데에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해 더욱 정확한 번역서를 내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경제학 콘서트》의 내용, 더 정확하게는 '잠복근무 경제학자'의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순서가 된 것 같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책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장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인 팀 하포드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장기를 살려 때로는 적절한 비유를 통해, 때로는 경제이론을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어려운 경제학의 주제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점 높이 평가할 만하다.

먼저 1장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벅스의 경영전략, 정확하게는 가격전략을 다루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가격결정의 원리와 가격차별의 의의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상품의 질과 양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시장원리의 일부다. 물론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기업의 의도가 깔려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스타벅스의 예는 가격결정 및 가격차별과 관련된 경제이론의 핵심을 잘 전달하고 있다. 슈퍼마켓에 관한 2장 또한 가격전략에 관한 것이다. 3장은 경제이론에서 핵

심인 이상적인 시장, 즉 완전경쟁시장을 다루었다. 이상의 3개장에서는 가격체계의 작동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쉽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교통체증을 통해 외부효과라고 불리는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중고차시장과 보험시장을 통해 사람들 간에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경제현상들을 다루고 있다. 7장에서는 도박과 경매 등 우리와 친숙한 것들을 통해 게임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 정보의 문제나 게임이론 등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결코 쉽지 않은 주제들이다. 그럼에도 팀 하포드는 특유의 유머와 감각을 동원해 이런 주제들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나머지 8장, 9장, 10장에서는 각각 정부의 역할,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중국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후반부는 다분히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갖고 있는 작은 문제점을 언급하려고 한다. 물론 이로 인해 이 책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구성하는 10개의 주제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들 간에 특별히 눈에 띄는 유기적인 관련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저자가 조금 더 신중하게 주제를 선택해서 책의 모든 장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중국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저자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들만을 선택했나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다. 경제학은 이와 같이 단순히 부분들의 합으로 구성된 학문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학문임을 강조하고 싶다. ■■